

‘빅문’ 과도한 강좌당 수강인원 “학습권 침해 수준”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④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정종희 기자 jihjih7@khu.ac.kr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빅문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사항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 또한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연재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기사에서 ‘팀티칭’ 방식과 ‘평가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짚는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빅문의 ‘강의 외부적 환경’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학생과 교수 등 강의 내부의 요소 뿐 아니라 강의 외부의 요소도 있다. 이를테면 강의실 환경, 강좌의 수 등이다. 이는 교수와 학생, 과목을 개설하고 제공하는 대학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후발 주자로 중핵 과목이 된 빅문은 강의 외부적 요소에서도 강좌 수, 한 강좌 당 학생 수 등에서 기존 중핵교과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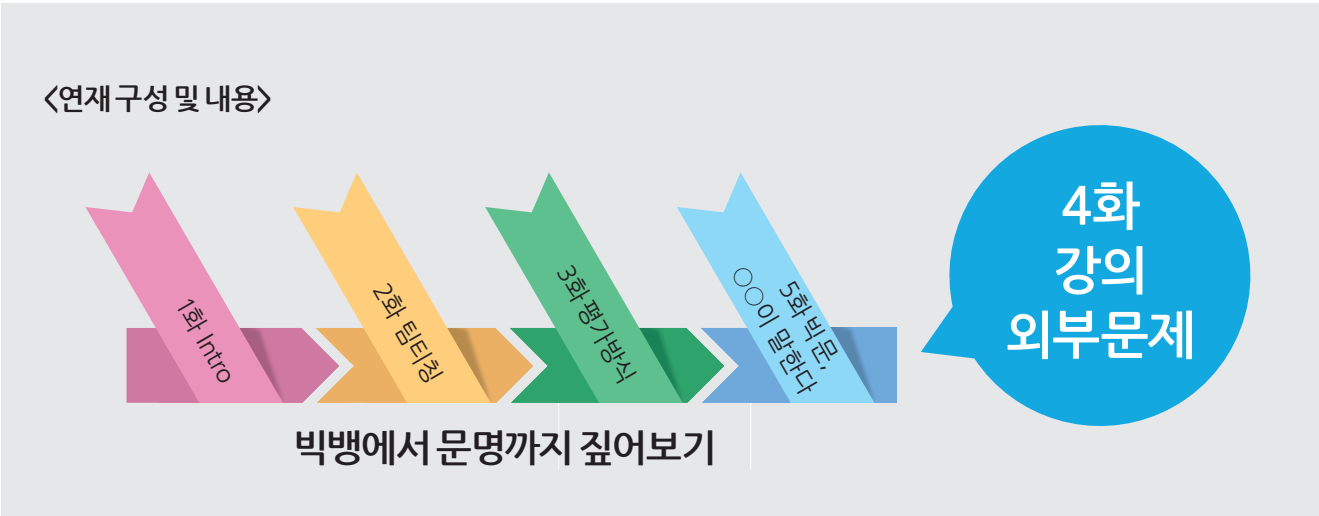
다른 중핵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강좌 수’

기존 중핵교과와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자 학생들이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강좌 수’다. 이는 지난해 우리신문이 기사(참고기사 : 대학주보 온라인, 2016. 9. 12)와 사설(참고기사 : 대학주보 제1610호 2면)로 2번에 걸쳐 짚은 바 있다. 지난해 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마지막 날인 9월 7일을 기준으로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 및 비밀게시판에는 빅문을 구한다는 게시물이 총 135개가 등록됐다. 강의 매매 글까지 등장할 정도로 ‘강좌 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짙었다.

하지만 빅문은 기존 중핵교과들의 첫 시작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도입됐던 지난해 1학기 총 5개 빅문 강좌가 개설됐다.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은 도입 당시 약 80개의 강좌가 열렸다. 강좌 수만 보면 빅문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인가탐이 80개의 강좌로 배출한 첫 학기 수강생

년도	1학기	2학기	수강자
2016	375	375	750
2017	750	750	1500
2018	1125	1125	2250
2019	1500	1500	3000
2020	1500	1500	3000
2021	1500	1500	3000
2022	1500	1500	3000

표1 : 각 년도 별 학기 당 빅문이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강생 수
2019년 이후로 그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은 총 320명인 반면 빅문이 첫 학기 배출한 수강생은 449명으로 더 많았다. 더불어 인가탐,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와 달리 빅문은 8학기 중 어느 학기나 수강이 가능해 강좌 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년 신입생 수를 3000명으로 가정하고 이를 8학기로 나누면 각 학기당 375명이 수강해야 한다. 여기서 매년 신입생 3000명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면 가령 2017년도 1학기에는 16학번 375명에 17학번 신입생 375명을 더해 750명을 수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375명을 더해간다. 최종적으로는 2020년, 16학번 졸업인원과 20학번 입학인원을 고려하면 각 학기 당 수강인원 1500명을 유지해야 빅문 수강 대상인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빅문의 기획을 맡았던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빅문이 처음부터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그 계획보다 더 많은 강좌가 개설된 상태이고 이번 학기에도 계획보다 430명 많은 1,18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년도	정원	1학기	여름	2학기	겨울	수강자	미수강자
2016	3,000	449		741	49	1,239	1,761
2017	3,000	1,180				1,180	
합계	6,000	1,629	-	741	49	2,419	

표2 : 현재까지 빅문의 실제 수강인원, 표1의 계획을 감안하면 도입 첫 학기부터 계획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후마니타스칼리지

하고자 하다보니 한 강의 당 학생 수가 많아 질 수밖에 없었다”며 “소규모 강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 학교의 재정적 상황과 제한된 자원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유정완 학장은 “빅문을 인가탐, 우사세와 같이 40명 강의로 만든다면 75개의 강좌가 개설돼야 했다”며 “75개의 강좌가 한 번에 개설되면 상대적으로 배분이나 자유이수강의가 줄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216명이 수강하는 빅문 강좌를 듣고 있는 최지희(언론정보학 2016) 양은 “너무 많은 인원이 듣다보니 전체적인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다”며 “토론수업시간에 서로 양방향 의견제시가 불가능한 구조라 빅문의 취지에 맞는 수업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송민근(지리학 2016) 군 역시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킨다는 빅문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강의 형식”이라고 꼬집었다.

대형강의를 운영할만한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1학기에 빅문을 수강한 장희연(주거환경학

2016) 양은 “U-class 시스템으로 출결을 하는데 오류와 고장 난 기기가 많아 불편했다”고 말했다. U-class 시스템 장애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우리신문은 지난 2015년 U-class 카드기 회사인 인사이드RF 측 담당자를 통해 “카드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기계상의 결함일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문제가 발생하고 대학 본부의 재정적, 행정적 문제로 보수가 미뤄져 결국 이는 여전히 빅문을 비롯한 대형강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빅문의 척박한 강의환경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다. 권영균 교수는 “U-class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매우 불편했다”며 “특히 야에 작동이 되지 않는 날이 종종 있었는데, 행정실에 말해도 U-class 시스템 회사를 통해 해결해야 해서 수업에 지장이 됐다”고 밝혔다.

출결 시스템 보완책 여전한 불만 목소리

U-class 시스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구글 설문이다. 이번 학기부터는 구글 설문 링크를 배포해 매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앉은 자리의 행과 열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업 전후에 교수가 직접 강의실 사진을 찍어 사진과 구글 설문 결과를 일일이 대조해 가며 출결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수강생 1,118명의 출결을 관리하는 인력은 2명의 조교가 전부다. 출결은 총 성적반영비율의 20%에 해당하지만 학생들은 종강하기 전까지 출결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김정현(언론정보학 2016) 군은 “성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결을 내가 원할 때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후에 오류가 있어도 증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재규 교수는 “워낙 수강생이 많다 보니 조교가 이를 한 명씩 확인하기 힘들다”며 “설문 후 이메일을 발송해 입력한 좌석을 보고 수정 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취해놓았다”고 말했다.

빅문의 강의 외부적 문제에 대해 후마 유정완 학장은 “후마 측에서는 빅문 시험 OMR카드 지원과 행정실 직원, 조교들의 시험 감독 지원 등 강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인가탐, 우사세와 같은 기존 중핵과목에 비해 빅문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원을 적게 받고 시작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1. 신청대상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학생
※ 2017-1학기 신입생은 2학기에는 재학생으로 신청

2. 1차 학생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00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17.05.17.(수) 09:00 ~ 06.20.(화) 18:0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익일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장학금신청현황→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5.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2017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 장학사업 1차 신청안내

1. 장학명

국가교육근로장학

2. 장학목적

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나. 직업체험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공

3. 주요내용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가. 교내근로 :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 시간당 9,500원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1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4. 신청기간

2017.05.17.(수) 09:00 ~ 06.14.(수)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학생통합신청 일정과 동일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6. 안내사항

가. 2017-2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 유형(학교 내 교육근로, 지역사회 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 분야) 참여 가능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제외
나. 2017-2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 동안 2017-1학기 장애평가 도우미 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학생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 1599-2000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7.06.01(목) ~ 06.27(화)
-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7.07.03(월) ~ 07.05(수)
-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 조치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7.06.15(목) ~ 06.29(목), (단, 06.25 ~ 06.27 제외)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7.07.03(월) ~ 07.05(수)

6. 강의평가 실시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당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작성]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